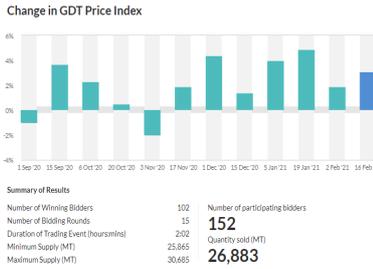




## [가격동향] GDT 가격, 3% 오르며 상승세 이어가

- 7회 연속 상승세...서유럽 유제품 수출가격도 상승



지난 2월 16일 실시된 GDT(세계유제품경매)에서 유제품 가격이 2주전 대비 3%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격지수는 1,170포인트로 전년동기 978포인트 대비 1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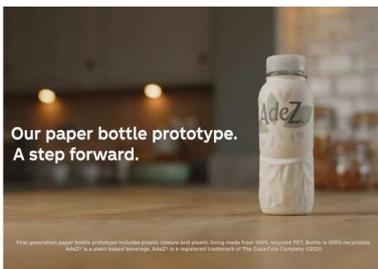
품목별로는 전지분유가 톤당 3,615달러(약 401만원)로 전장대비 4.3%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2주전 하락했던 탈지분유도 0.3% 오른 톤당 3,207달러(약 355만원)로 소폭 상승하며 재반등했다. 버터도 톤당 5,129달러(약 568만원)로 2% 상승했고 체다치즈도 2.4% 오른 톤당 4,268달러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중국의 경기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회복하며 유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백신 보급이 시작되며 동남아시아 지역을 비롯해 전반적인 유제품 시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유제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2월 5일 USDA가 발표한 서유럽 유제품 수출가격도 2주전 대비 버터는 0.9%, 탈지분유는 1.3% 그리고 전지분유도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globaldairytrade.info, 2월 16일, USDA, 2월 5일자 >

## [지속가능] 글로벌 음료업계, 100% 재활용 가능한 종이병 도입 박차

- 코카콜라, 2030년까지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교체 및 폐기물 제로화 추진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음료기업 코카콜라가 100% 재활용 가능한 종이병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코카콜라는 혁신적인 패키징 솔루션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해 ‘폐기물 없는 세상(World Without Waste)’을 목적으로 업무 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캔과 병을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로 교체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폐기물 제로화를 선언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맥주회사 칼스버그, 보드카 생산업체 앱솔루트 그리고 화장품 기업 로레알과 협력해 덴마크의 종이병 스타트업과 공동으로 브뤼셀에 있는 자사의 연구소에서 탄산음료, 화장품 등 액체류를 담을 수 있는 종이병 시제품(프로토타입)을 개발한바 있다. 이어 금년 여름에는 헝가리에서 시제품 2천개를 출시해 소비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단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업체관계자는 “환경 보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업을 통해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패키징 솔루션을 선보임은 물론 폐기물 없는 세상에 한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출처 : entrepreneur.com, 2월 16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